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할 것인가 : 시점과 화법

• 모든 이야기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 말해지는’ 이야기이다 : 누가,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 절대적인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에 대한 누군가의 언급만이 존재할 뿐
- 모든 이야기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욕망과 의도를 만나는 일 : ‘무대의 맨 앞 부분’
- 자신이 구상한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책임자를 결정하는 일이 중요함

- ㉠ 「다크 엔젤」, 「로즈마리의 아기」, 「살인자의 기억법」, 「올빼미」의 의심스러운 화자
- ㉠ 「한산」, 「적(敵)」의 시점으로 보는 낯선 이순신과 생생한 한산 대첩
- ㉠ 「조커」와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망상에 빠진 화자, 가해자 내러티브와 폭력 판타지
- ㉠ 「어스」의 반전구조,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혹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 ㉠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인간중심주의를 비껴 타자의 말을 경청하기

서사학에서 시점을 다루기는 까다롭다. 시점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혀 시각적이지 않은 문학을 시각적인 비유를 통해 이해하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문학에서 시점은 사건과 사물을 누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의 문제를 이미지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서술된 내용에 관련해서 다룰 수밖에 없다. 반면 영화의 시점은 곧바로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를 일컫는 말이다. 이는 카메라의 시점이 반드시 누군가의 시점을 대변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관객들이 누구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를 고려하고 판단하는 일이다. 문학에서의 서술과 화자의 문제와도 연관되는 시점 논의는 이야기의 대상에 대해 어디에서 위치해서 관찰하고 공감하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세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드러내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 특정한 세계관을 표현하는 방법론이 되기도 한다. 감독의 시선과 관객의 시선, 등장인물의 시선과 관객의 시선 사이에 다양한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감독의 인식과 관객의 인식 사이에서도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카메라는 불특정한 시각 주체의 존재를 가정하면서 영화의 이미지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만, 동시에 관객은 바로 그 ‘주체’를 정의해야 하는 까다로운 의무를 지닌다. 시점은 결국 관객의 영화보기-동일시 혹은 생소화에 영향을 끼친다.

- ㉠ 「남매의 여름밤」, 꿈꾸는 자의 시점, 꿈꾸는 자를 바라보는 양옥집의 시점

• 말하기와 보여주기의 조정과 화자

- 말하기와 보여주기의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화자의 개입 정도를 결정함
- 영화의 화자는 카메라 자체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만 가능함

- ㉠ 「엘리펀트」의 무심한 카메라, 단 한 번의 리얼리티를 보기 위한 시선의 방식

- 영화의 1인칭 화자 : 핸드 헬드 카메라 기법, 카메라가 이야기 안으로 개입

- ㉠ 「악녀」의 1인칭 카메라, 현장과 액션을 직접 경험하는 박진감

- 영화의 내레이션 : 감독과 화자의 직접적인 해설, 영화 장르에 반하는 말하기

- ㉠ 「친절한 금자씨」와 「기생수」의 내레이션, 누가 말하고 있는가? 애증의 심리적 거리두기

- ㉠ 「위기의 주부들」의 유령화자의 훑쳐보기와 훑보기, ‘수다’의 수사학

- ㉠ 「레스트리스」, 「밤을 걷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 「탐견 매버릭」, <웃는 동안>의 유령 화자, 유령의 눈으로 꿰뚫어보는 세계

- 내레이션의 두 가지 방식(관찰 대상) : 타인과 세계, 내레이터 자신/대화, 독백

- ㉠ 「중경삼림」과 「밀레니엄 맘보」의 장황한 독백과 장면 전환, 엉켜진 시간과 시점

- ㉠ 「Her」, ‘her’(객체)에서 ‘she’(주체)로 진화하는 말하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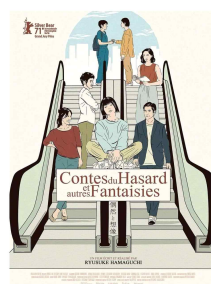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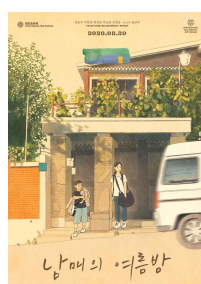
• 꼭 필요한 말만 하라, 독자와 관객이 직접 목격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라

- 먼지털이식 해설의 지양 : 음악은 듣는 사람이 의식하지 못할 때 가장 큰 감동을 준다
- 사건의 중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라
- ⑤ 「우연과 상상」, 인물이 보는 장면과 관객이 보는 장면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
- 1인칭 시점의 카메라를 취하는 경우
- 다큐멘터리 : 촬영자의 육체적 기관과 카메라의 동일시, 피사체와 관객의 자의식 강화
- ⑤ 「블레이 워치」와 「파라노말 액티비티」, 1인칭 관찰자 시점과 CCTV의 무시점
- 괴이한 (디지털) 기계 시점들의 범람 : 언젠가 세상은 영화가 될 것이다
- 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스마트폰이 사용자를 보는 시선
- ⑤ 「아이 인 더 스카이」, 카메라가 전쟁을 보는 방식/보고 싶어 하는 방식

걸프전, 9.11 테러, 동남아 쓰나미, 이라크전쟁을 경유하면서 우리는 압도적인 재난과 죽음의 이미지를 위성중계, 혹은 우연히 찍힌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첫 인류가 되었다. 그 거친 이미지들은 잘 촬영된 높은 해상도의 할리우드영화보다 훨씬 더 큰 충격과 시각적 쾌감을 선사한다. 거친 입자와 불안정한 화면, 불균질하고 불연속적인 편집은 성찰적 거리를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전쟁과 재난 이미지 체험을 전용하며 강력한 현재감을 빚어낸다. 수용자들은 일관성과 감수성을 좌표 삼아 영상을 성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관음증적으로 소비하고 현혹될 뿐이다. 다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역할과 기대를 가지고 누구의 시점으로 이 동영상들을 보고 있느냐는 것이다. 무엇이 진정으로 보는 것이고 무엇이 거짓으로 보는 것인지, 그 한계는 어디에 있으며, '진짜' 현실이 더 우리를 기만하는 경우는 없는지, 영화의 진정한 성질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다.

사방팔방이 폭력이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이미지들로 뒤덮인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일종의 스펙터클로 소비해 버린다. 타인의 고통이 하룻밤의 진부한 유흥거리가 되고 우리는 타인이 겪었던 고통을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 참상에 정통해진다. 우리가 잔혹과 고통으로 점철된 전쟁의 이미지를 다시, 그리고 또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전쟁을 보는 우리가 전쟁의 일 부이기 때문이다. 시리아가, 이라크가 그렇듯이, 우리가 바로 전략으로서의 관객이기 때문인 것이다. 무엇을 찍고 본다는 것은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더욱 부추기는 방법이다. 찍는다는 일은 대상 그 자체, 지금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존재하는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행위이며, 찍어놓아야 할 만큼 그 피사체를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인가(예컨대 남에게는 고통이나 불행이더라도 내게는 흥미로움을 주는 상황)와 공모하는 행위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관한 영상을 본다는 것은 실은 우리가 전쟁의 궁극적인, 은폐된 명령자임을 인정하는 일이다.

- 플롯을 완벽하게 꾸미는 이야기 방식
- 이야기방식은 세계를 인식하고 짜는 틀이 된다
- 세계 인식 자체의 허위성을 반영하는 이야기 방식의 복잡난해성
- ⑤ 「장화홍련」과 「몬스터 콜」의 롤플레이 게임, 함께 악몽 꾸기
- ⑤ 「괴물」 : 마음의 재난에서 생기는 괴물, 누가 괴물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
- ⑤ 「사라진 시간」 : 나비의 꿈꾸기 혹은 나비가 되는 꿈꾸기
- ⑤ 「아가씨」 : 히데코의 이야기, 숙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 ⑤ 〈영원한 화자〉 : '나'에 대한 목록 만들기, '나'를 '나'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 ⑤ 〈이창〉 : 창으로 훑쳐 보는 저쪽 세계 혹은 오인된 거울상



□ 김애란 <영원한 화자> (『달려라 아비』, 창비)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기 위해 내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는 사람, 그러나 그것이 내 이름인 것이 이상하여 자꾸만 당신의 이름을 불러 보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냉소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저 사람은 허영심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 저 사람은 냉소적이고 허영심도 많지만 어쨌든 나를 좋아한단 말인가 아니란 말인가. 나는 ‘알기’ 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하나 가끔 알 수 없는 쓰다듬에 숨죽이는 사람이다.

나는 말을 줄고 다니는 사람, 나는 나의 수집가, 나는 나를 찌푸린 눈으로 보는 나에게 가장 버르장머리없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말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느라 호프집에서 오줌보를 붙든 채 상체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조금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 앞사람이나 옆사람도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사실에 불쾌해지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가 대답하기 위해 내 이름을 부르면 고개 돌리는 사람, 그러나 그것이 내 이름인 것이 이상하여 자꾸만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도 자주 질문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유머감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저 사람은 속물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저 사람은 유머감각이 있고 속물적이지만 어쨌든 나를 좋아한단 말인가 아니란 말인가. 나는 ‘묻기’ 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하나 가끔은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철렁이는 사람이다.

나는 지혜와 별로 친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그녀가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내 자리로 와 몇마디씩 건네기 시작했고, 점점 앉았다 가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다 나는 웬지 나도 그녀에게 뭔가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당시 부쩍 친구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던 마음을 털어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나와 친했던 친구들이 하나 둘 멀어져갔고,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도시락을 혼자서 먹어야 했다. 대수롭지 않은 일 같지만, 도시락을 혼자 먹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인지 알 것이다. 그것의 고통은 내가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인 것을 모두가 ‘보고’ 있다는 데 있다.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일이었는데 그녀가 ‘같이 점심 먹었던’이라는 말을 꺼내자 그때 일이 기억나는 것이었다. 그때 내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런 일을 마든 사람 이름이 이지혜였다는 것도 말이다. 물론 그녀는 그런 일들은 전혀 기억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도시락을 혼자 먹은 것은 그녀가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나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의 말에 고개 끄덕여준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도 동창회에 나갈 일은 없을뿐더러, 오늘처럼 그녀를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1시 11분은 지났고, 나는 이제 11시 12분에 대해서도, 11시 13분에 대해서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당신이 떠난 후, 나는 몹시 우울한 나머지 한밤중 길에서 외계인을 만난대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자꾸만 내가 누군지 잊어먹어갔다. 그래서 자꾸 고3때 반장이 되거나, 대학 때 아르바이트생이 되거나, 아랫방 처녀가 되거나, 착한 막내가 되거나, 이동통신사 고객

이 되거나, 뒷좌석의 시야를 가리는 앞좌석의 관객이 되거나, 예의바른 후배가 되거나, 우물쭈물하는 수습직원이 되거나, 낱짜를 잘 어기는 납세자가 되거나, 아는 여자가 되거나, 맥줏집 단골이 되거나, 신중한 소비자가 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갔다. 그리하여 나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연락도 없이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열차 내에선,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이니 승객 여러분은 모두 하차해 주시기 바라며 가실 땐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란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종착역에서 내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송을 들을 때면 번번이 뭔가 거절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동시에 아무것도 두고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 잊고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터널 속으로 사라져가는 열차를 끝까지 바라보며 시계를 봤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지혜의 말이 다시 생각나는 것이었다. 가을 동창회 때 보자고. 우리 학교는 은행나무가 예쁘지 않느냐는 말. 불현듯 나는 내가 졸업한 학교에는 은행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갑자기 뒤돌아서 열차가 갓 빠져나간 터널 구멍을 목마르게, 한참 동안 바라봤다.

결국 그날 나는 당신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긴 노선을 되돌아가며 내가 ‘무엇무엇 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며 멍멍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기다리기만 하며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 나는 변명만 하고 살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 나는 내가 경멸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했던 사람, 나는 아르바이트하느라 찢절때는 시간에 악기를 배워보고 싶었던 사람, 나는 당신의 고통을 소문낸 사람, 나는 어쩌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사람, 나는 전동칫솔과 에어브라를 갖고 싶어했던 사람, 나는 오래 전 한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던 사람, 나는 여전히 전동칫솔이 없는 사람, 나는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 나는 세금을 받으러 온 주인의 기척이 들리면 집에 없는 척하는 사람, 나는 점점 여기 없는 사람인 척하는 사람, 나는 여기 없는 척하느라 당신이 불러도 대답하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그때 사실 당신 근처까지 갔던 사람…… 하여 나는 이 많은 말들 속에서도 당신이 끝끝내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해받고 싶은 사람, 그러나 당신의 맨얼굴을 보고는 뒷걸음치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랑이 ‘나는’으로 시작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나는’이라고 말한 뒤 주저앉는 사람, 나는 한번 더 ‘나는’이라고 말한 뒤 주저앉는 사람, 그러나 나는 멈출 수 없는 사람, 그리하여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처음부터 다시 말하는 사람이다. 하여, 우리는 흐르는 물에 손을 베이지 않고도 칼을 씻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

□ 구병모 <이창>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문학과지성사)

처음 목격한 것은 그녀가 거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아이를 발로 걸어차고 있는 장면이었다. 아이는 웅크린 정도를 넘어 바닥에 젖은 잎사귀처럼 들러붙어 있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 나중에는 셀 수도 없었다. 발길질을 한 번 할 때마다 아이의 몸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굴렀는데 그녀는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며 걸어찼다. 걸어차는 모양새치고는 슬로모션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천천히 발로 밀어 낼 때보다 빠르게 가격할 때 가속도가 붙어 두 행위 사이에 육체적 고통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리라는 점을 안다. 그러나 속도와 무관

하게 견어차임을 당하는 대상이 느낄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은 동일할 테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유명한 모토는 그 사실을 증명한다. 꽃으로 때려서 사람이 죽기 때문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녀가 햇빛을 받거나 환기하기 위해 언제고 저 버티컬을 다시 열 것이라는 기대로 나는 몇 날을 기다렸다. 그사이에 아이가 무사한지 궁금하여 신고한 내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관할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했으나, 역시 다짜고짜 내 이름과 주소부터 대라는 말에 그냥 끊어버렸다. 경찰 입장에서야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신분이 확실치 않은 사람에게 내사 결과를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나는 세상 모두가 합심하여 맞은편 집 아이의 불행과 재난에 한몫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당신들도 모를 리 없다, 사소한 선의를 실천하기 위해 한 사람이 받는 정신적 물질적 손해와 고통이 결코 작지 않음을. 거리에서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여자를 힘으로 구해줬더니 그전까지 연인 사이에 오갔던 폭력마저 혼자 뒤집어쓰고 고소당하는가 하면, 처참한 교통사고의 증인을 서주려 했더니 경찰서에 끌려가 장시간에 걸친 갖은 취조를 당하는 동안 내가 가해자인지 목격자인지 헛갈리는 사례를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가면서 나로선 최선을 다했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할 의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까지 비난받아야 할 이유란 없다.

당신은 개인적인 관심사를 자꾸 있어 보이게 포장하려 들어. 행위의 본질은 대동소이한데 거기 자꾸 논리와 이유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인간이라 자위하고 싶은 거지. 남편의 그 말은 지금까지 남과 무엇인가를 나누기 위한 내 숨가쁜 질주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처럼 들려서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의 과거 행적까지 물귀신처럼 붙들고 늘어져 보았다. 적어도…… 적어도 당신만은, 실천은 힘들더라도 잘못된 일에 최소한 관심이나마 가질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래도 한때 단대 학생회장이었었는데…… 이 대목에서 남편은 코웃음과 손사래를 함께 쳤다.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1년 임기를 채우기는 했다. 그렇지? 근데 내가 그때 마음하고 똑같이 살았다면 지금 회사에서 과장까지 올라갔겠어? 우리가 딸 데리고 이 동네 이 단지 살기는커녕 근처에라도 와봤을 것 같아? 당신, 몸은 이 단지에 살면서, 정작 버릴 수 있는 거 이중 한 가지도 없는 주제에 그 빚갚음 하느라고 혼자 깨어 있는 척 치열한 척하지 마,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는 남편의 등 뒤로 자조와 체념이 길게 드리워지는 걸 보면 그 역시 나를 말리기 위해 절반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를 착취하며 살 만큼의 권력도 없이 정당한 방식으로 누적해 온 우리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일종의 죄의식을 떨치지 못하는 거라 믿었다. 딸은 개수대에 제빈 밥그릇과 수저를 떨어놓고는 횡허게 자기 방으로 모습을 감춰버렸다.

당신 자식이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모른 척 지나가면 될 일을 애써 파고드는 저의는 무엇인가, 누군가를 위한다는 신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가 같은 것들 말이다. 내 아이가 다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길러내는 아이가, 훗날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아이로 자라난다는 걸 그들은, 당신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

그들은 이웃집 그녀보다 오히려 나더러 제정신이 아니라고 한목소리로 말하며, 이제 누가 미친 사람이고 미치지 않은 사람인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본질을 흐리는 데에 한몫했다. 글을 올린 지 이틀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몇몇 사람이 내 신상을 털기 시작했고—나는 내가 얼마나 심신 건강한 사람으로서 타인의 일에 관심 갖고 당신들의 구태의연한 입버릇인 ‘그

래도 아직은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는지 최소한의 사전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기본 스펙과 함께 과거 봉사활동 목록의 일부를 올려놓았더랬다-신상 털기 앞에서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예언자'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었기에, 본격적인 마녀사냥이 시작되기 전 나는 원문을 삭제했다.

나는 영정 속의 아이를 차마 바라보지도 못한 채 눈을 아래로 두고 절차를 갖춰 인사한 다음 그 자리를 물러나왔다. 돌아나오기 전에 설마 싶어서 한 번 더 바라본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나와 내 딸을 향해 있었고, 이제 곧 우리 두 사람을 덮칠 듯한 웃음을 더욱 짙게 띠고 있었다. 그 웃음은 남편이 한 말처럼 고통과 슬픔의 여진으로 아무나 붙잡고 생떼를 쓰고 싶어하는 눈치가 아니라, 내가 이겼다고 말하는 것만 같아서…… 도망치듯이 나왔다. 그녀 웃음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비이성적인 사람은 누구이며 이 일이 누구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는지, 이제 당신들이 멋대로 판단하라. 진실을 아는 이는 무덤에 있으니.